

# 오경에 나타난 제사장문헌의 공언에 대한 재평가

우택주  
<구약학·부교수>  
tjwoo@kbtus.ac.kr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오경에 나타난 제사장 문헌이 오경의 신학사상 형성에 미친 공헌을 재평가하고 그 의의를 되새기려는 데 목적이 있다. 오경의 최종 완성 시기는 제2성전 시대이며 그 주체는 이 시기의 제사장 집단이라는 사실은 비평적 성서학계의 전통적 합의점이다. 구약시대 제사장 집단의 신학사상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군주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일관된 목소리로 외쳤던 문서 예언자들의 제의 비판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집단은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쳐 신약시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연 제사장 집단의 역할이 그 정도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삶의 제반 영역에서, 특히 신앙과 정치 영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을 감당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

다. 비록 예언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고는 하나 제사장들은 포로기의 포로 공동체와 포로기 이후의 귀환공동체 그리고 재건된 제2성전 시대 내내 정치적 지도력은 물론이고 신앙적 지도력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를테면, 제사장으로서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겔이 남긴 예언서는 포로기의 제사장이 귀환 후 몰락한 유다 사회의 재건을 위해 어떻게 희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학개서와 스가라서는 성전 재건과 신앙 확립을 촉구하는 예언서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지고 보면 포로기를 전후한 예언서 그 어떤 것도 귀환 후 조성된 팔레스틴의 제2성전 공동체의 제사장적 필요와 무관한 책은 없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 예언서들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모두가 제사장의 지도력과 음으로 양으로 상관이 있는 책들이라는 말이다. 이런 형편은 오경이나 전기 예언서 그리고 후기 예언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제사장 집단의 역할과 신학을 재평가하는 일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이들에 대한 신선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더욱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의 사역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다각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신학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런 평가가 한국 목회자들에게 던지는 시대적 의의를 고찰하는 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신학 연구가 현장에 접목되지 않는 현학적 논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은 해묵은 비판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신학적 평가와 더불어 그 의의를 오늘의 목회자적 사명에

비추어 해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려고 한다.

때맞춰 지난 5월에 한국구약학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서학 세미나와 발맞추어 성서에서 언급하는 “성직제도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연구자는 주제 강연의 석상에서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는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재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sup>1)</sup> 이 논문은 주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원을 사회학적으로 살피는 데 집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제사장들이 구약성서 특히 오경이나 후기예언서에 남긴 족적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구약성서적 신앙 형성에 끼친 공헌과 역할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 논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 특히 오경에 남긴 문헌 편찬 작업을 다시 한 번 중점으로 탐구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 목회자의 현재에 던져주는 의의를 고찰하려고 한다.

## 2. 연구를 위한 전제

오경에 대한 역사비평적 합의는 오경을 적어도 네 개의 독립된 문서(혹은 자료)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각 야훼문서(J), 엘로힘 문서(E), 신명기 문서(D), 제사장 문서(P)이다.<sup>2)</sup> 이 합의에 대한

1) 우택주, “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본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재평가,” 2007년 5월 3일, 제72차 한국 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2) P 문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것이 설화체로 이루어진 문헌자료(narrative document or source)인가 혹은 편집단계(redactional stage)를 지칭하는가에 집중해 왔다. 참조. D. A. Knight, “The Pentateuch,”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 by D. A. Kni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285. 자료로 보는 견해는 마르틴 노트에 의해(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8-19, 228ff), 편집단계로 보는 견해는 프랭크 크로스에 의해(F. M.

최근의 변화는 J 문서와 E 문서를 구별해내기 힘들다는 것이며 그래서 J와 E의 결합체인 JE 문서를 편집한 P 문서와 그리고 D 문서만이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독특성을 갖고 있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sup>3)</sup> 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경 안에서 P 문서가 D 문서와 확연히 구별된다는 사실이며 서로 섞이지 않았다는 점이다.<sup>4)</sup> 이것은 제사장 집단이 편찬한 문헌은 신명기를 제외한 사경(Tetrateuch),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국한한다는 사실로 귀착된다. 신명기는 뒤따르는 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서-열왕기까지의 긴 민족 역사의 서론 역할을 하는 책이다.<sup>5)</sup> 시기적으로 보면 D 문서의 완성시기(ca. 621-561년 BC)는 P 문서의 완성시기(ca. 587-537 BC)와 어느 정도 중복되면서도 P 문서가 D 문서에 비해 약간 후대에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 문서는 D 문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93-325) 각각 주창되었다. 그러나 이 두 견해를 동시에 포용하는 입장도 있다. 참조. E. W. Davies, *Number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1.

- 3) J. J. Collins,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62-4; J. Blenkinsopp,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229-42. 하지만 가장 최근에 한 논문은 오히려 J 문서가 오경의 최초의 편집자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참조. Christopher Levin, "The Yahwist: The Earliest Editor in the Pentateuch," *JBL* 126, No. 2 (2007): 209-30.
- 4) Cross, *Canaanite Myth*, 320. "JEP와 D(D+Dtr)는 깨끗이 나뉜다." 그러나 블렌킨썩은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전승(수 18-19장)에까지 제사장 문헌(P)의 증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The Pentateuch*, 237f). 크로스는 이에 관해 D의 처지에서 P가 사용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반론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Canaanite Myth*, 320f).
- 5) 신명기를 필두로 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서-열왕기서가 포로기에 팔레스틴의 역명의 서기관에 의해 쓰인 민족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신명기역사"란 학술용어를 창안한 학자가 노트이다. 참조. M.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1943]).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문서 역시 P 문서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P 문서가 활용한 정보를 어느 정도 입수하여 그 나름의 독특한 역사이해를 바탕으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한 문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P 문서가 포로전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작성하였고 D 문서의 작성시기와 어느 정도 겹친다는 사실은 제사장 집단이 오경에 미친 신학적 영향력 평가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경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게 하지만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신명기까지도 포함한 오경의 최종형태를 전수한 이들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작업이 포로시대(비록 포로기 이후에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라는 특정한 시기의 필요와 맞물려 있다는 전제도 반드시 본문 이해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3. 사경에 나타난 제사장 집단의 작업<sup>6)</sup>

#### 1) 제사장 작업의 특징

이 연구논문 후반에 있는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 전승은 크게 보아 이야기체의 내용(narrative)보다는 선행하는 전승들(즉 JE 문서층)의 요소요소 길목에서 일정한 이야기의 틀이나 흐름을 제공하고 조직화하는 양상이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두고 일찍이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은 P 문서를 일컬어 “JE라는 보석이 달려 있는 주홍색 줄”과 같다고 묘사한 적이 있다.<sup>7)</sup> 크로스는 이를 보

6) 사경 안의 P 문서의 범위는 이 논문의 끝에 도표로 처리하였다.

7)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J. S. Black and A. Menzies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7), 332.

다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제사장 전승은 결코 독립된 문헌(code) 형태를 지닌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사경에 있는 규범적 JE 전승을 조직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것은 또 포로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 문서에서 유래한 고대의 문헌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편집단계(redaction)”로 규정하였다.<sup>8)</sup> 그렇다면 군주시대에 형성되었을 JE 문서 사이사이에 출현하는 P 문서를 포로기에 작업한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의 틀을 갖고 기존 전승들을 편찬했을까? 이제 P의 작업에 주목해 보자.

## 2) 언약 구조를 통한 제사장의 역사관<sup>9)</sup>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P 문서가 JE 문서가 전하는 민족 창건의 서사시에 시대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P문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한다.<sup>10)</sup> 그 시대는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뉘고 이를 각각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시대로 구분하여 부를 수 있다. 각 시대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 사건의 보도로 마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 가지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다. 그리고 각 언약에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마지막 국면에 언약의 징표를 제시하는 구조로 전개된다. 우리는 이

8) Cross, “The Tabernacle: A Study from an Archaeological Approach,” *Biblical Archaeologist* 10 (1947), 57f.

9) 제사장 문헌의 역사의식을 언약의 구조로 간파한 학자는 F. M. Cross이며 그의 논문은 이에 관한 이후의 모든 논문의 초석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에서 연구자는 그의 논문을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소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언약구조를 바탕으로 고찰한 제사장들의 포로기적 사고는 순전히 연구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10) Cross, *Canaanite Myth*, 295.

축복의 말씀과 징표를 언약 구조로 삼고 세 가지 언약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의 경우, 그것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나라를 잃고 땅을 뺏긴 포로시대에 제사장들이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데 가장 근본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각 시대에 항상 언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 구조가 뜻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포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제사장들은 당대의 고난과 역경이 지나면 다시 한 번 언약 준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실현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담의 언약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세상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짐승에게도 주신 것이다(창 1:20-22). 따라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들이 작업한 사고 구조 안에서는 오로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세 가지에만 등장한다.

노아 언약: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창 9:9; cf. 8:17)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창 17:6)

모세 언약<sup>11)</sup>: “내가 ...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레 26:9)<sup>12)</sup>

11)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체결한 모세 언약의 내용으로서 야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의 일부이다.

12) Cross, *Canaanite Myth*, 296, nn 8, 9, 10. 이 삼중언약 구조에 관한 개론적 언급과 신학적 토론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또, 창조 기사에 언급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창조 기사에 감추어져 있는 “안식일” 자체는 우리가 말하려는 언약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축복의 말씀은 장차 땅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며 창조 후 안식은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안식일 계명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언약의 원형(archetyp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세 시대의 세 가지 언약의 구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사장의 언약구조는 먼저 노아 언약으로 시작한다. 아담의 시대와 노아 시대를 구분하는 사건은 홍수이다.<sup>14)</sup>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모든 육체와 맺은 언약, 즉 우주 보편적인 언약으로 귀결된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자신을 일반적인 신 명칭인 “엘로힘”으로 계시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9:7)고 축복하신다. 이 언약에는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의무가 부과된다(창9:4-6). 여기에는 살인이 포함된다.<sup>15)</sup> 반대로 하나님의 의무는 다시는 땅 혹은 모든 육체를 홍수로 파괴하지 않는 것이며(창 9:11) 그 징표는 무지개이다(창 9:13). 하늘에 걸어둔 활 모양의 무지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파멸시킬 하나님의 의로운 전쟁무기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해할 수 있다.

노아의 시대를 족장시대와 구분 짓는 사건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주 기록이다(창 11:31-32).<sup>16)</sup>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언약에 비해 그 범

---

*Testa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452-66; idem, *Contour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79-236. 앤더슨의 두 번째 저술은 노아의 언약을 다루지 않고 그 대신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다.

13) Ibid.

14) Ibid.

15) Ibid.

16) Ibid., 297.



위가 좀 더 협소해졌지만 내용은 더 많아진다. 더 많은 내용이 더 적은 소수에게만 계시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노아 언약에서 “엘로힘”으로 묘사되었던 하나님은 이제 보다 친밀하고 구체적인 신 명칭인 “엘 샤다이(전능하신 하나님)”로 계시된다.<sup>17)</sup> “엘 샤다이”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칭하여 부르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창 17:1-2)는 말씀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창 17:5).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창 17:6)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엘 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창 17:7-8). 이 언약을 지속시킬 언약의 징표는 할례이다(창 17:10-14).<sup>18)</sup> 땅과 후손이란 주제 역시 포로시대의 포로민이나 그 이후 식민지 팔레스틴 땅에서 사는 거주민의 염원을 가장 절실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다.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를 구분 짓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세 번째 언약인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수여한 율법을 통하여 폭력을 금지하는 노아 언약을 더욱 강력하게 강조하는 동시에 땅에 정착하기를 염원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제 시내산에서

17) Ibid., 52-60. “샤다이”(shadday)의 어미는 쌍수형태(dual noun form)를 지니고 있어서 “산봉우리들, 젓가슴”을 뜻하므로 엘 샤다이는 “산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젓을 공급하는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담은 신명으로 이해된다.

18) Ibid., 297. 족장 언약의 틀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에게(창 17:21; 21:4) 그리고 야곱에게 주어진다. 마지막 야곱의 경우는 더욱 완성된 형태의 언약이 나타난다(창 35:9-13). 야곱의 경우,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약의 공식 대부분이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창 35:11-12).

맺은 모세의 언약은 언약의 수혜자를 더욱 제한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의 내용을 더욱 확대시킨다. 제사장 집단은 앞서의 두 언약인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언약과 자기 계시로 가는 길목에서 보면 잠정적인 것으로 보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우주 보편적인 노아 언약과 특수한 소수에게 주어진 아브라함 언약의 묘사는 언약의 공식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 언약의 경우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에 걸쳐 있는 시내산 단락 전체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제사장들의 작업의 손길은 일찍이 출애굽기 6:2-9로 시작하고 레위기 26:3-45에서 언약의 저주와 축복을 상술하면서 마무리 권면으로 끝난다.<sup>19)</sup>

출애굽기 6:2-9는 모세 언약의 서언 역할을 한다.<sup>20)</sup> 여기서는 제사장의 언약 구조에 드러난 대로 하나님 이름에 대한 계시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와 순서대로 등장한다. 이 구절에는 언약의 공식 중 축복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축복(과 저주)은 이 언약 공식의 끝부분에 나오도록 배치하였다. 그리고 모세 언약의 서언에 걸맞게 땅의 약속이 나오며 이 땅 선물의 언급은 다시 새로운 맥락 속에 배치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출 6:6-8).<sup>21)</sup>

시내산 언약의 징표는 안식일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19) Ibid.

20) Ibid., 298.

21) Ibid.

하는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히, 브릿 올람)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히, 오토)이며”(출 31:13, 16f). 이 안식일 표징은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제사장 문서인 창세기 1의 세상 창조의 기록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창세기 1장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안식을 설정하고 있다. 또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영원한 언약(히, 브릿 올람)”으로 표현한 제사장들은 그것을 여기서 안식일에 적용하고 있다.<sup>22)</sup>

### 3) 언약의 징표와 역사의식

구약 시대 언약백성 이스라엘이 안식일과 할례를 역사적으로 강조하던 시절에 관하여 학자들은 그 때가 포로기라고 생각한다.<sup>23)</sup>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암울했던 시절이었다. 나라도 성전도 없이 타국 땅에서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한 포로 공동체를 위하여 제사장들은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간직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다가 찾아낸 결과가 곧 “우리가 세우는 시간 속의 궁전”<sup>24)</sup>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식일 준수와 육체에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할례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관습이었으며 안식일은 이스라엘 군주시대 내내 지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할례와 안식일은 포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에 의해 지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았다.<sup>25)</sup> 안식일의 경우, 군주시대

22) Ibid.

23) 참조. R. W. Klein,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126f.

24) Abraham Joshua Heschel, “시간 속의 궁전,” 김순현 역, 『기독교사상』, 2007년 2월, 24. 궁전이란 하나님과 신앙인이 함께 머물 공간을 상징한다.

에는 그저 밭일을 하루 쉬는 것이 관례가 된 날이었고 백성들은 이 날 한 주간 내내 밭일에 매달려서 미루어왔던 물물거래를 위한 시장보기, 친지 방문, 가족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 방문과 같이 각종 가정사를 처리하는 날이었다.<sup>26)</sup> 물론 이 가정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제물을 들고 집에서 가까운 지역 성소에 나아가 그 곳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는 일이었다. 이 때 백성들은 레위기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상사에서 깨어진 대인관계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른 제사들(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을 드렸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날이 비단 안식일만은 아니었다. 월삭에도 위의 일상사와 종교 행사를 거행하였다(삼상 1:21; 20:5-6; 왕하 4:23; 호 2:11; 암 8:5; 사 1:13; 느 10:34; 대상 23:31; 대하 2:3, 8:13, 31:3. Cf. 골 2:16).

그러나 안식일을 각종 노동에서 쉬는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에서 제의화 하고 오로지 예배에 전념하는 날로 제정한 때는 바로

25) 할레가 포로기에 정체성 확립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약간 상이한 입장의 논의를 위해 다음을 참조하라. R. B. Coote,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67-70. 쿠틀은 할레가 드러나지 않은 신체적 표시이기 때문에 가족의 어른이 혈연관계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으로 충성 맹세를 시키는 의식이었다고 본다.

26) 참조. R. de Vaux,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482. 군주시대 동안의 안식일이 장날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참고. 우택주, “아모스서 난해구절의 새로운 번역을 위한 주석적 고찰,”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 지평: 사회과학 비평적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60-6. 또한, 벨엘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행사에는 “예물 바치기와 희생제사 드리기, 집단으로 애곡하기, 신탁받기, 곤궁한 자들에게 들어온 기부를 나누어 주기 … 구원받은 이야기를 낭독하기, 사람을 정화하는 의식,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그리고 언약체결을 확증해주는 일들을 포함했다”(R. B. Coote,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우택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80-1).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려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바빌론의 포로 공동체는 바빌론 사회에 살면서 점차 안식일 준수 정신이 해이해졌다. 이에 대처하여 제사장들은 고국의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특정 시간의 준수로 대체하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함으로써 다시 한 번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제사장들은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성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창의적 노력은 사경의 언약구조 속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명시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창조의 절정은 제칠 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였다는 데 있다. 이것은 안식일 준수가 곧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다는 고백적 진술로서 선택받은 언약공동체는 안식일을 준수를 창조 질서에 가장 부합한 태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한 행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sup>27)</sup>

홍수 이후 맺은 노아 언약의 징표인 무지개는 고대 상징의 세계 속에서 활 이미지와 중첩된다. 활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냥도구 혹은 전투 무기이다. 노아 언약에서 이런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무지개를 하늘에 두어 언약의 징표로 삼은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최악이 관영한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전쟁을 다시는 벌이거나 일으키지 않겠다는 표시로써 하늘에 하나님의 활을 걸어두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홍수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창조질서를 무효로 만드는 우주적 대혼란과 혼돈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홍수를 지상의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히, *geshem*)으로

27) Klein, *Israel in Exile*, 126.

이해하여 기록한 JE 문서를 읽은 제사장들은 이 자연현상을 우주적 혼돈(히, *mabbul*)으로 확대해석하였다. 그들에게 이 우주적 혼돈이란 곧 나라와 성전을 상실한 채 이방의 나라로 끌려와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고백인 것이다.<sup>28)</sup>

정리하면, 포로시대 제사장 집단은 군주시대 전승군인 JE 문서를 놓고 창조에서 정복 직전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대로 구별하고 각 시대를 믿음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세 차례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로 기술하였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모세 언약이 그것이다. 각각의 언약은 무지개, 할례, 안식일 준수를 언약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징표로 설정된다. 이 징표들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모두가 포로기의 경험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역사적 체험 이야기를 창조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고 다시 이 모든 사경의 내용을 창조의 관점에서 읽어 나가게끔 유도하고 있다. 나라 멸망과 성전 파괴의 경험 그리고 이방 나라로 끌려와 지내는 포로의 경험은 질서와 정반대되는 무질서와 혼돈 자체이다. 그 무질서와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로 사라지고 온 세상은 보기 아름다운 질서 잡힌 세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지음 받은 피조물들(짐승과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은 백성들이 죽음과 파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씨앗도 남김없이 소멸 당할

28) Blenkinsopp, *Pentateuch*, 82; W. Brueggemann, "The Kerygma of the Priestly Writer," *ZAW* 84 (1972), 397-414; Klein, *Israel in Exile*, 125-48. 이와 달리 노아의 홍수를 우주적 정화(a cosmic cleansing)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참조. Robert B. Coote and David R. Ord,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46; Tikva Frymer-Kensky, "The Atrahasis Epic and its Significance for our Understanding of Genesis 1-9," *Biblical Archaeologist* 40 (1977): 153.

위협 앞에서 소수의 포로민이 품은 절실한 희망이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친 후 안식하였다. 다시 아름다웠던 세상에 폭력과 무질서가 만연해 지자 하나님은 우주적 홍수를 일으켜 지상의 더러움을 정화한 후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무지개를 징표삼아 노아와 언약한다. 땅과 자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로 징표를 삼으며 역시 엘 사다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는다. 자손도 땅도 없지만 오로지 약속만 믿고 역경을 이겨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다시 한 번 포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현실과 깊이 공명한다. 압제받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야훼 하나님은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하면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의 날로 역사화된 안식일 준수를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제시한다.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 구원 경험과 그에 따른 율법 준수를 창조질서에 합당한 삶으로 격상시켜준다. 결국 포로시절 제사장들은 사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로의 경험이 압도적으로 제공하는 신앙상실의 위기, 정체성 상실의 위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는 혼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서 오히려 더욱 강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을 갖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만드는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제시하였다.

#### 4) 세계 창조와 성막

제사장의 사경 구성 작업 중에서 언약구조를 통한 역사 이해를 제외하고 나면 단연 주목받아 마땅한 작업은 세계 창조에 관한 기록, 즉, 창세기 1:1-2:4a이다. 세계 창조의 기록이 포로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크로스는 포로시절의 제사장 집

단이 마련한 창조와 성막 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문헌 속에 그리고 P에 가장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는 포로기의 곤혹스런 문제는 하나님의 숨어계심(hiddenness)과 이스라엘의 죄(sinfulness)였다. 제사장 전승자에게 시내산 언약, 그 제의와 율법은 야웨가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심”(tabernacling)을 가능하게 하도록 고안한 장치였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sup>29)</sup>

이 창조의 기록은 언약구조의 역사 중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시내산 언약의 성막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창조 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듯이 성막 건설에도 관여하신다(창 1:2; 출 31:3; 35:31). 창조의 절정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듯(창 2:1-3) 시내산 언약의 징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마무리된다(출 31:13-17). 성막을 짓는 순서조차 창조 순서와 닮았다(출 36:8-39:43; 40:1-33). “처음에 천막을 세우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고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들여놓고 제단과 물 두멍을 만들고 휘장 남쪽에는 등대를 설치하고 제사장을 위한 옷을 차례로 짓는 순서가 마치 빛과 어두움을 가르고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땅이 드러나 식물이 자라게 하고 빛을 내는 것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생물과 사람을 지으시던 순서와 비슷하다.”<sup>30)</sup>

성막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뿐 아니라 새로운 백성을 창조한 사건으로 이해되는 출애굽 구원의 완성을 지향한다. 성막은 구원받고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임시

29) Cross, *Canaanite Myth.*, 299-300.

30)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 성서학 연구소, 2002), 180.



거처이다. 성막은 언약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요 목표이다.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속적인 제의를 통해 변함없는 자세로 나아가도록 일깨워주는 핵심적인 시설물이다.

동시에 창조를 통한 혼돈과 무질서를 제압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세계를 압축적으로 조성해 두고 있는 구조물이 바로 성막이다. 이를 테면, 성소 앞 물두멍은 단지 손을 씻는 장소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다를 용기에 담아둔 것이고 바다와 육지에 경계를 내어 서로 침범치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그래서 용기 속의 물은 하나님의 질서 명령에 순응하는 바다인 셈이다.

시내산 언약에서 성막 건설의 의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는 조형물이다. “제의 시설물 전체와 제의는 죄 많은 백성을 찾아오시는 초월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제를 극복하고 표현하도록 고안되었다.”<sup>31)</sup>

이 성막은 언약 백성 가운데 설치된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이나 시내산 정상 위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 언약백성들의 삶의 현장 한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이동할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도 항상 함께 천막 속에 머물러 계실 것을 뜻한다. 그것은 초월자의 낮아짐, 겸손,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이것이 지속시키는 조건은 거룩함이다. 즉, 백성 가운데 머무는 성막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은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할 목적으로 성막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이 주어진다. 문제는 성막의 거룩함이 오로지 그 시설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31) Cross, *Canaanite Myth*, 299.

아니라는 점이다. 그 거룩함은 성막 주변에 위치하여 함께 이동할 언약 백성들 모두의 삶 전체 속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야웨가 거룩하므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레 19:2). 이 거룩함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강령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십계명(출 20:1-18), 언약법전(출 20:22-23:33), 제사장 법전(레 1-16장) 그리고 성결법전(레 17-26장)에 이르는 방대한 법도와 가르침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듯 성막은 한편으로는 창조 질서를 함축적으로 축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애굽 구원의 완성을 지향하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생성되는 모든 신학적 반성의 원천이요 표준을 제공해준다.

#### 4. 나가는 말: 포로기 제사장 집단의 공헌

왕국 몰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의 근거지였던 성전의 파괴를 경험하고 온갖 특권을 상실한 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포로시절 다른 지도자들과 전문가들과 합심하여 이 상실의 시절을 “창의적인” 기회로 만들어갔다.<sup>32)</sup> 그들은 한편으로 기존의 전승을 깊이 연구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전승들을 정리하고 손질하여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의식 고취에

32) P. R.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7. 기원전 6세기를 “a creative epoch”라고 표현한 사람은 D. Winton Thomas 교수이며 그의 1961년 강연제목이었다.

몰두했다. 이들은 당대에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목도했고 그것을 수용하여 오경을 완성시켰다.

오경을 전해준 제사장들의 세계관과 신학을 사경을 중심으로 재검토해 볼 때, 그들은 군주시대 내내 이루어졌던 사회의 온갖 비판과 탄핵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미 벌어진 국가와 성전 몰락의 현실 앞에 철저하게 스스로를 부인하고 심도 있게 반성했음이 틀림없다.

사경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검토하고 반성하며 진지한 신학적 구조를 제시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착 전까지의 역사를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끝을 언약 체결로 마무리하고 독특한 언약의 징표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신학을 구체화시켜나갔다. 그들은 노아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이유를 명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약속을 무지개(활)를 통해 고백하였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으며 이를 위해 할례를 몸에 새기고 공동체의 정신적 기강을 확립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역사적인 출애굽 구원의 은총을 되새김질 하였고 창조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성막 건설을 통해 언약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원칙을 제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였다.

이 같은 제사장들의 신학 작업은 그야말로 뼈아픈 역사를 수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제사장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성전 안에 갇혀서 가져오는 예물로 만족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의 의식은 이제 철저한 역사 반성에 입각한 견고하고 투철한 역사의식과 신앙의 지로 가득 차 있다. 이제는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도 안다. 이들은 자신

들의 유익을 구하는 밀실 집단도, 성전 안에만 갇혀 사는 엘리트 계도 집단도 아니었다. 공동체 전체가 겪고 있는 암울한 현재 앞에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최선의 처방을 내놓은 치유집단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들이 완성하고 전해준 오경은 다른 성서 속 책들 가운데 으뜸이요 표준적인 신앙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종합 계시(total revelation)가 되었다. 이는 자기 변신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음이 틀림없다. 21세기의 한국의 목회자들도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올바르게 희망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 1세기 이상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철두철미한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하여 신앙의 원칙을 새롭게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 <도표>

사경에 나타난 제사장 집단의 작업은 학자들 사이의 약간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단락과 구절들로 구별할 수 있다.<sup>33)</sup>

---

33) M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Chico: Scholars Press, 1981), 262-76. 이 도표는 이 책의 번역자인 B. W. Anderson이 보충한 “오경 분해 개요”에서 P 문서 단락만을 발췌한 것이다. 해당 구절에 대한 우측의 우리말 요약은 연구자가 때로 적절하게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다.

A. 창세기

1) 원역사

창 1:1-2:4a	창조기사
5:1-32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
6:9-22	노아 족보
7:6, 11, 13-16a, 18-21, 24	홍수 기사
8:1-5, 7, 13a, 14-19	
9:1-17	
9:28-29	노아의 저주와 축복
10:1-7, 20, 22-24, 31-32	민족들의 족보
11:10-27, 31-32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

2) 족장사

12:4b-5	아브라함의 부르심
13:6, 11b-12	롯과 갈라짐
16:1a, 3, 15-16	이스마엘의 출생
17:1-14	할례의 언약
17:15-27	언약의 자손 약속
19:29	소돔 멸망, 롯의 구원
21:1b-5	이삭 출생
23:1-20	매장지 구입
25:7-11a	아브라함 사망
25:12-17	이스마엘의 후에
25:19-20, 26b	에서와 야곱 출생
26:34-35	이삭 이야기
27L46-28:9	야곱, 아람으로 도피
31:18	야곱, 밧단아람을 떠나다
33:18a	야곱, 세겜 도착
35:6, 9-13, 15	야곱, 벧엘로 돌아옴

35:22b-26	야곱의 아들들
35:27-29	이삭 사망
36:1-14	에서의 자손
37:1-2	요셉의 꿈
41:46a	요셉이 총무가 된 나이
46:6-27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
47:27-28	야곱의 한평생 요약
48:3-6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
49:1a	야곱의 축복
49:29-33, 50:12-13	야곱의 죽음과 장사

## B. 출애굽기

1:1-7, 13-14	압제
2:23-25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6:2-13	모세의 두 번째 소명
6:14-27	레위 가문
6:28-7:7	모세의 대변인, 아론
7:8-13	재앙의 서곡: 뱀이 된 지팡이
7:19, 20, 21b, 22	피 재앙
8:5-7, 15	개구리 재앙
8:16-19	이 재앙
9:8-12	악성종기 재앙
11:9-10	마지막 재앙 예고
12:1-20, 28	유월절
12:40-42	출애굽
12:43-51	유월절 보충
14:1-4, 8-10, 15-18, 21-23, 26, 28-29	홍해를 건너다
15:22, 27	첫 번째 기착지

16:1-3, 6-27, 32-35a	만나와 메추라기
17:1	반석의 물
19:1, 2a	시내산 소개
24:15b-31:17	시내산의 제의 명령
31:18	황금송아지
35:1-39:43	시내산의 제의 명령 실행
40:1-38	성막을 세움

C. 레위기 전부

D. 민수기

1:1-10:10	시내산 출발 준비
10:11-21:13	가데스바네아 체류 <호밥, 법궤, 불평, 미리암 처벌, 가나안 땅 정탐과 불평, 가나안 남부 공격 실패, 모세에 대한 항명 기사는 J 문서로 제외>
20:22b-29	아론 사망
22:1	발락과 발람
25:6-18	일어난 배교 사건들
26:1-65	두 번째 인구조사<추가>
27:1-11	딸의 상속<추가>
27:12-23	여호수아 위임
28-36	<추가 제사장 자료>

E. 신명기

31:14-15	여호수아 위임
32:48-52	모세의 사망 임박
34:1a, 7-9	모세 사망

## 참고자료

-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 성서학연구소, 2002.
- 우택주. 『8세기 예언서 이해의 새 지평: 사회과학 비평적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Heschel, Abraham Joshua. “시간 속의 궁전.” 김순현 역. 『기독교사상』, 2007년 2월, 22-34.
- Ackroyd, P. R. *Exile and Restor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Anderson, B. W.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_\_\_\_\_. *Contour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9.
- Blenkinsopp, J. *The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New York: Doubleday, 1992.
- Coote, Robert B. and Ord, David R. *In the Beginning: Creation and the Priestly Histo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Coote, R. B.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우택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Collins, J. J. *Introduction to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Davies, E. W. Numbers.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de Vaux, R. *Ancient Israel: Its Life and Institutio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61.

Klein, R. W.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Knight, D. A. "he Pentateuch."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Ed. by D. A. Kni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Noth, M.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 Chico: Scholars Press, 1981.

\_\_\_\_\_.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57).

Wellhausen, J.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J. S. Black and A. Menzies.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7.

우택주. "사회학적 관점으로 살펴본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의 재평가." 2007년 5월 3일, 제72차 한국 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

Brueggemann, W. "The Kerygma of the Priestly Writer." ZAW 84 (1972): 397-414.

Levin, Christopher. "The Yahwist: The Earliest Editor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6, No. 2 (2007): 209-30.